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제4회

# I 사랑 태교음악회

2018.10.5. FRI 7:30PM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휘 이경구

지휘자 이경구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박재열, 김창목 교수에게 사사하여 작곡과를 졸업하고 인천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유학하여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콘서바토리움에서 암스텔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인 Anton Kersjes와 독일 쾰른 방송교향악단 지휘자인 Jan Stulen 교수에게 사사하고 그 외 이론 및 실기 등 지휘과의 과정을 이수하여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하였으며, 독일 데트몰트 음악대학에서 지휘과를 수료하였다. 또한, Internationale Meisterkurse, 이태리 Musica Riva 지휘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Nederland Sittard Orchestra, 독일 Deusseldorf Ugend Orchestra, KBS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 하였다. 평택대학교 교수와 KBS열린음악회 클래식 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 협연



### 목관5중주

플루트 김상애  
오보에 윤지용  
클라리넷 이세훈  
바순 이준원  
호른 주홍진



### 소프라노 손가솔

Charles Spencer, Mya Besselink, Hubert Delamboye, Brenda Mitchell 교수를 사사한 소프라노 손가솔은 국내에서도 임현정의 지휘, 전승현, 김우경 등 세계적 연주자들과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마술피리'에서 밤의여왕을 연기했으며, 국립합창단과 '까르미나 부라나', 베토벤의 9번 교향곡 독창자로 제주특별자치도립교향악단과 협연, 금난새 지휘로 성남시향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비올렛타), '리골렛토'(질다),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향 특별 기획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밤의 여왕 역으로 공연하였다.



### 테너 이명현

테너 이명현은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DAAD(독일학술교류처)에서 국비장학금을 받으며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mit Auszeichnung)으로 졸업하였다. 또한 레나토 부르손, 에다 모저, 키리 테 카나와, 달톤 발드윈 등의 음악가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음악적 견문을 넓혀왔다.



### 강의 최세경

산부인과 전문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대한 산부인과 정회원  
대한 폐경학회 정회원

가천의대 길병원 외래교수  
전) 초연유 산부인과 원장  
현) 아이미즈 산부인과 원장

## 프로그램

모차르트 1756-1791

린트파인트너 1792-1852

### 강의

푸치니 1858-1924

레하르 1870-1948

쿠르티스 1875-1937

아르디티 1822-1903

레하르 1870-1948

모차르트 1756-1791

교향곡 제25번 g단조 K.183 중 제1악장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중 제2·3악장

### 음악과 태교

오페라 <자니 스키기>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물망초

입맞춤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지만'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K.492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6월 1일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초대 상임지휘자로 김중석이 임명되어 창단과 함께 교향악단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84년 한국 교향악계의 원로인故 임원식이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악단 발전의 중반기를 맞이하였다. 1994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금노상을 영입, 국제규모의 4관 편성으로 증원되었으며, 2006년 9월에 중국 상하이 출신의 첸 주오황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영입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지휘자 금난새가 취임하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지휘자 정치용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2018년 10월부터 바톤을 잡는 이병욱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함께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는 메이저 오케스트라로 비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3,000여회 기획연주회, 미국, 유럽(이태리, 불가리아, 유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주를 통하여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사절단으로 국제음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부천, 대전, 전주, 목포 등 지방 순회연주를 통해 지방 문화 활성화로 한국 교향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모든 연주회를 시리즈별로 구성하고 수준 높은 협연자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연주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창단 50주년인 2016년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패러다임인 시즌제를 교향악단 단독으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앞으로의 희망찬 50년을 열어가고 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여 미래 중심도시인 인천을 넘어 세계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